

코로나19 시대의 보육환경 내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 **

Young Children's Social Experiences Within Child Care Centers During COVID-19

최혜영¹ 유준호² 권수정³ 장경은⁴

Hye Yeong Choi¹ Junho Ryu² Sujung Kwon³ Kyung Eun Jahng⁴

ABSTRACT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보육지원학회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1 제1저자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2 공동저자

울지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3 공동저자

한화태평로어린이집 원장

4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kjahng@khu.ac.kr)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young children's social experiences during COVID-19. In this study, social experiences are defined as children's social interactions and relationships, their educational experiences, and their daily life experiences in child care centers.

Methods: Participants include nine child care teachers and fifteen young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individual teachers, interviews with young children, and small group storytelling activities with young children.

Results: The main findings in exploring meanings and implications of childcare consulting were as follows. First, childcare consulting was recognized as a process of learning about changes through mutual relationships. Second, the different ways to practice childcare consulting, the formation of the learning culture of an organization to help experience collective intelligence, the process of finding various solutions through mutual communic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hildcare teachers' professional capabilities while reflecting the current times and context were all investigated.

Conclusion/Implication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the importance of childcare consulting, and the ways to establish its systems were discussed.

key words young children's social experiences, COVID-19, qualitative research

I. 서론

World Health Organization(202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를 겪었고, 어린이집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근 어린이집 내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휴원에 따른 긴급보육 이용률이 2월말 10%대였던 것이 5월말 72.7%, 7월에는 80%를 넘어섰다(보건복지부, 2020; 아시아경제, 2020.8.4.). 확진자가 급증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휴원 조치를 시행하며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을 하달하였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외부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보육 활동 상황에서도 개별 놀이를 중심

으로 구성된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시작했다(보건복지부, 2020).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하여 보육교사들은 근무 여건 악화, 감염병에 대한 최신 정보와 긴급 돌봄 시 영유아 보호와 교육에 관한 상세지침 부족, 팬데믹으로 인한 불안 및 스트레스 증가 등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최예린, 2020; 최은영, 2020a).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위한 교사들의 지원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민감한 영유아의 정서적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육교사들은 방역 뿐 아니라 불안감을 느끼는 영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최예린, 2020).

이처럼 변화된 보육 환경에서 영유아는 사회적 경험에서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계 측면에서의 경험, 보육환경에서 영유아의 교육 경험, 보육 환경에서 하루일과와 일상생활 등을 포함하는 영유아의 보육 관련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어린이집은 영유아에게 중요한 사회적 환경으로서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서 영유아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와 규범을 배우고 익혀 건전한 사회성을 형성할 수 있다(김상립, 2012).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는 필수적인 것으로 유아가 일생에 걸쳐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등 사회적 적응을 해나가야 한다(양옥승, 2013; Kostelnik, Whiren, Soderman, Stein, & Gregory, 2017).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상호작용 제한, 접촉의 최소화, 가정 보육 및 퇴소 급증, 외부인과 외부 활동 통제 등이 어린이집의 일상이 되어 영유아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교류는 제한되었다(최예린, 2020).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가정 보육 및 격리 등의 조치가 영유아의 심리사회적·정서적 문제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은영, 2020b; Chen et al., 2020; Crescentini et al., 2020; Saurabh & Ranjan, 2020).

미국의 CDC(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유아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대응에 대한 경험을 발표한 바 있다. 영유아는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며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은경, 견주연, 하지민, 2015).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한 성인의 스트레스가 영유아의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성인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경우 영아는 정서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유아는 자신이나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걱정에서 사로잡힐 수 있다. 즉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유아는 과도한 걱정이나 슬픔, 부정적인 식습관이나 수면 습관, 주의력과 집중력 저하 등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영유아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육아정책연구소(2020)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의 부정적 정서 경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달라진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고, 규칙적 생활의 변화로 인한 짜증과 무기력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영유아가 짜증과 답답함을 호소하며, 부모의 부정적 양육과 갈등 증가는 영유아에게 슬픔과 죄책감 같은 부정적 정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도 휴원 조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가정 보육을 경험한 후 다시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경우 영유아는 불안하고 낮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육아정책연구소, 2020).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영유아의 사회적 및 정서적 경험에 대한 연구가 소수 진행되고 있으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또는 정서적 경험 등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상호작용만을 의미하는 협의로서의 사회적 경험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서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다루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물리적 환경 내에서 영유아의 경험이 어떠한지 이해하는 것은 영유아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문제 1.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린이집에 등원하고 있는 영유아가 어떠한 사회적 경험을 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코로나19 보육현장에서의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및 경기도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재직 중인 보육교사 9명을 연구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또한 유아의 경우 교사 E가 만 3세 5명(남아 2명, 여아 3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고, 교사 C는 만 5세(남아 2명, 여아 3명) 5명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교사 B는 만 5세(여아 5명) 5명을 대상으로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진행하였다. 총 3개의 어린이집에서 유아가 모집되어 개별인터뷰와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 참여자를 섭외하기 위하여 연구자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등을 설명한 뒤 이 관계자가 수도권에 위치한 어린이집에게 이에 관해 전달하고 이 중 연구 참여 의사가 있는 교사들을 모집할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설명한 뒤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얻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코로나 상황이었으므로 대면으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 참여자도 있었으므로 이 경우에는 화상 또는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면담에 한하여 참여자가 동의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근무지역, 기관유형 등을 가능한 다양하게 표집하여 현장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경험들을 최대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의 연령도 다양하도록 하여 영유아들의 사회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에 따른 익명성(confidentiality)을 보장할 것임을 인지시키고 본 연구에서는 그들의 이름 대신에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배경

	성별	연령	교사경력	최종학력	담당연령	기관유형	면담일자	면담장소
교사 A	여	42세	15년	대졸	4-5세	민간	2020/9/11	기관 쉼터
교사 B	여	26세	7년5개월	대졸	5세	민간	2020/9/17	비대면
교사 C	여	29세	7년6개월	대졸	4-5세	국공립	2020/8/28	교사실
교사 D	여	29세	7년	대졸	1세	직장	2020/9/17	비대면
교사 E	여	29세	4년	대졸	3세	직장	2020/8/6	교사실
교사 F	여	35세	10년	대졸	1세	직장	2020/8/27	교사실
교사 G	여	30세	6년7개월	대졸	1세	가정	2020/9/13	비대면
교사 H	여	46세	10년6개월	대졸	2세	가정	2020/9/17	비대면
교사 I	여	29세	9년	전문대졸	2세	가정	2020/9/16	비대면

2. 연구절차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보육교사와의 개별 면담, 유아와의 인터뷰 및 유아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에서 이루어진 교사와 유아와의 대화 내용 등을 포함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보육 환경에서 유아가 경험하는 감정과 생각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아 대상 인터뷰를 자료에 포함하였다. 유아와의 개별 인터뷰와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보육실에서 진행되었다. 그 외에 코로나 19 전후 보육계획안과 교실환경 사진을 수집하여 물리적 환경 구성의 변화를 연구자가 직접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가 자료들은 연구참여자인 교사들과의 면담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를 돕고 연구참여자의 면담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는데 기여하였다. 보육교사와의 개별 면담은 반구조화 인터뷰(semi-structured interview)로 진행하였다. 사전에 면담 질문지를 미리 준비하였고 준비된 질문들을 기초로 대면 또는 비대면 면담을 진행하면서 추가 질문들을 하여 면담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의 진술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교사들과의 개별 면담 내용은 동의하에 모두 녹음되었다. 면담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질문 목록은 표 2와 같다.

표 2. 반구조화 면담 질문

면담 질문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일과 중 유아들의 일상생활은 어떠한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들의 놀이는 어떠한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아들의 상호작용이나 놀이 중에 코로나에 대해 언급하거나 코로나를 주제로 한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코로나19 감염에 대하여 유아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 코로나19 발생이후 유아들에게 코로나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일과 진행은 어떠한가?
• 코로나19 이후 수업(활동) 진행방법 등은 어떠한가?
• 코로나19 발생이후 환경 구성은 어떠한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통해 라포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를 위해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 진행하였다. 2020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개월 동안 교사 일 인과의 1회기의 개별 면담을 실시하였다. 1회 면담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이루어졌다. 연구를 진행하는 시기에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면담에 어려움이 있어서 화상 또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면담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작년과 올해의 하루 일과표, 환경구성 사진, 하루일지, 계획안 등은 교사들이 준비하여 연구자에게 e-mail로 전달하였으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전반적인 물리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자료들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유아와의 개별 면담 및 유아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육현장에 외부인 접근이 불가하여 교사들이 직접 진행하였다. 교사들과의 개별 면담, 유아와의 개별 면담 및 유아 소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은 모두 녹음한 후 전사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전사된 교사와의 면담 전사본은 총 111장이었고, 유아 면담 전사본은 총 17장이었다.

전사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의미 있는 내용들을 묶어내는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는 영유아의 반응, 영유아의 보육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영유아의 놀이 경험,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으로 주제를 나누어 각 주제에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을 면담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교사와 유아들의 진술을 그대로 제시함으로써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수집된 자료를 같이 읽고 분석하는 과정을 함께 하였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에 의한 합의와 검토를 통하여 자료 분석과 해석에 대한 타당도 확보가 가능하였다.

표 3. 주제 및 소주제 구조

소주제	주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의 불안감과 두려움 영유아가 생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영유아의 반응
교실 안 사회적 거리두기 가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에서의 갭 영유아의 발달 경험 마스크에 적응해가는 아이들	영유아의 보육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제한된 놀이 놀이 유형과 놀이 주제의 변화 놀이를 찾아가는 아이들	영유아의 놀이 경험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제한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Ⅲ. 결과 및 해석

1. 영유아의 반응

1)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의 불안감과 두려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들의 반응 중에서 정서적 반응을 유아교사 및 유아와의 면담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유아들은 코로나바이러스를 괴물, 아픔, 죽음 등과 단어들과 관련지어 인지하고 있었다.

제가 코로나바이러스를 만나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 기분이 어떨 것 같냐고 했을 때 안 좋을 것 같다고 얘길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직접 보이지는 않으니까 형체는 없지만 괴물처럼 두려워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코로나바이러스가 아프게 하니깐 안 좋을 것 같아요. (유아 면담, 2020.09.15.)

코로나가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전 아플 것 같아요. (유아 면담, 2020.09.15.)

코로나에 걸리면 온몸이 아플 것 같아요. (유아 면담, 2020.09.15.)

코로나 걸리면 숨도 못 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마스크 안 하면 확진자 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유아 면담, 2020.09.15.)

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유아들은 불안감과 두려움, 공포 등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경우 유아들이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의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 (조필환, 2013).

저희는 화상체크 기계를 놔뒀거든요. 1층에 열 체크하러 하루에 두 번씩 가는데 제가 가끔 깜빡하면 “선생님, 열 체크하는 시간 됐어요”라고 말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7세 친구들은 물병을 같이 사용했었는데 이제는 물병 가져와서 “엄마가 이거는 혼자 사용하래” 이려고.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게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이러한 유아들의 불안감은 열 체크와 물병 사용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서도 드러났다. 열 체크를 하지 않거나 물병을 개별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유아들의

믿음이 유아들의 행동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였다.

2) 영유아가 생각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

위에 제시한 교사의 유아 행동 관찰 내용에서도 드러나듯이 유아들은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잘 인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법을 살펴보면, 유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하여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집착과 감염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왜 내 얼굴이 대고 기침해. 코로나 걸려” 이런 얘기를 한다든가. “마스크 꼭 써야 돼”하고 마스크의 중요성을 얘기하더라고요. (B 교사 면담, 2020.09.17.)

마스크를 꼭 사용하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유아 면담, 2020.09.15.)

유아들은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 등의 기본적인 위생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서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기 상황의 심각성을 알 수 있으며 부모와 교사들로부터 유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지식을 충분히 전달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라서 지식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일부 유아들은 독감과 유사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도 보였다.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30초. 코로나바이러스는 원래 안 씻으면 나타나는 거야. (유아 면담, 2020.09.15.)

밖에 막 나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 되고. (유아 면담, 2020.08.27.)

독감 주사 맞아요. (유아 면담, 2020.08.27.)

2. 영유아의 보육환경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1) 교실 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구 참여자들과의 면담 내용에 따르면, 보육 현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하여 물리적 거리두기를 준수하고자 하고 있었으며 물리적 환경 구성의 변화부터 시도하고 있었다. 테이블마다 가림막을 설치하거나 복도나 계단에 발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 유아들이 서로 물리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복도나 계단에도 발 표시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줘서 거리두기를 하고요. (C 교사 면담, 2020.09.15.)

(아이들이) 아직은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이 많으니까 하다 보면 옆에 오게 되고, 같이 보게 되고 이러니까 사실 어린이집에서 거리두기는 힘들어요. (I 교사 면담, 2020.09.16.)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 현장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원칙대로 지켜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영유아들의 발달 특성상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마스크를 착용과 손 씻기 등의 위생 관리를 통한 감염 예방 방법을 실천하고 있었다.

2) 가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에서의 갭

본 연구에 착수했을 때,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포괄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연구 참여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영유아의 사회적인 경험의 부족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결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사회적인 경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보육 서비스라는 사회적인 경험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유아들은 가정 내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 가정으로부터 받는 교육적 지원의 정도가 개별 유아마다 매우 상이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가정 지원의 차이로 인한 교육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성은 예전보다 크게 좋아졌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언어나 수학 같은 건 눈에 띄게 많이 늘었다 라는 것도 있는데 안 그런 친구들은 한부모 가정 친구들이 저희 반에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이제 그런 활동지를 쥐도 원에 그냥 가지러 오시라고 해도 못 가지러 오시고 저희가 간다고 해도 “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뭐 어떻게 가정 방문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격차가 좀 많이 벌어지고. 가정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나에 따라서 가정환경에 따라서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바쁘신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에는 어렵더라고요. 아이들이 지원을 받기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 없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이거를 원격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게 큰 문제인 것 같아요. (B 교사 면담, 2020.09.17.)

이와 관련하여 연구 참여자는 학령기 영유아와 달리 부모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영유아기에 가정 내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을 강조하였다.

3) 영유아의 발달 경험

영유아기는 급격한 발달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영유아에게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타인을 관찰하고 이를 모방하여 정서 및 사회적 기술들을 학습해야 하는 시기인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입 모양을 보지 못하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적극적인 상호작용에도 제한을 받고, 동적인 놀이보다는 정적인 놀이 위주로 보육 현장 내에서 아이들이 향유할 수 있는 놀이에도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타인의 정서와 행동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모방하는 영아들의 경우 여러 발달 측면에서 적절한 자극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영아의 경우) 약간 상호작용이나 언어발달, 신체발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보다 훨씬 조금 애들이 더딘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언어발달도 느는데 마스크 착용 때문에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더더지는 것 같기는 해요. (I 교사 면담, 2020.09.16.)

지금 한창 2세 같은 경우에는 관찰놀이가 꽃이 필 때가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모방을 하고 이런 형태들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친구들이 조금 등원이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좀 아이들이 차질을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H 교사 면담, 2020.09.17.)

외부활동을 못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굉장히 활동적이고 뛰어 놀 나이인데 에너지 소비를 못 하니까 교실이나 유희실에서 많이 뛰어 놀아요. (G 교사 면담, 2020.09.13.)

이에 교사들은 지금의 위기 상황이 영유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바깥놀이나 외부 활동을 통한 대근육 사용과 에너지 방출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으로 실내에서 뛰어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실내에서 동적인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이들의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는 환경적 자극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4) 마스크에 적응해가는 아이들

물리적 환경의 변화와 활동에 대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마스크 착용에서도 눈에 띄는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에 어려움을 느끼던 아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스크 착용에 적응하고 심지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상황에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앞서 제시한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유아들의 불안감을 통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또 들어가면 어떡해요”하는 애들도 있고, 애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강해지긴 하더라고요. 마스크가 없다는 것에 조금 더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찾더라고요. (D 교사 면담, 2020.09.17.)

마스크 내리고 있으면 “선생님, 애 마스크 내렸어요”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하고 있게 친구가 또 말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안전수칙이나 위생에 대해서는 가정에서도 워낙 강조하고 있고 원에서도 안전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부분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3. 영유아의 놀이 경험

1) 제한된 놀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에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우선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실에서의 놀이에서 상당한 제약이 불

가피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놀이 영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유아의 수를 축소하고 유아들끼리 물리적 거리를 두는 기관 내 지침을 지키고 있었다.

원래는 한 영역에서 4명, 5명씩 놀이를 했지만 이제는 **2명씩 놀이를 하기로 규칙**을 아이들이랑 정했구요. (C 교사 면담, 2020.09.15.)

놀이 때도 친구들끼리 모여 있으면 유아들이 스스로 “코로나 걸려! 멀리 떨어져!”라고 말해요. (C 교사 면담, 2020.09.15.)

소꿉놀이에서 “아~하고 먹어봐” 이런 놀이가 진행되니까 **소꿉놀이나 병원놀이는 제외**시켰어요. 자유놀이선택 자유놀이감에서요. (A 교사 면담, 2020.08.27.)

놀잇감이 조금 축소된 건 있고요. 대그룹으로 이동을 잘 안하죠. (A 교사 면담, 2020.08.27.)

이와 같이 유아들의 자유놀이에서 놀이 그룹의 규모와 놀잇감이 축소되고 교사들은 아이들 간의 밀접 접촉이 가능한 놀이를 제지하고 있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들은 제한된 놀이를 경험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아이들의 발달 경험도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 놀이 유형과 놀이 주제의 변화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아들의 놀이 그룹과 놀잇감 축소 등의 물리적 환경에서의 재구성에 따라서 유아들의 놀이 유형 및 놀이 주제에서의 변화도 발생하였다.

아이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 동적으로 움직이면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되도록 **정적인 활동**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소그룹**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작년보다는 정적으로 행사도 하지 않고 모든 활동들이 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다른 반 친구들과하고 연계해서 하는 활동을 아예 못 하고 **지역사회 연계활동 자체도 지금 우리가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1인 놀이를 해야 한다면 교사의) 압박감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꼭 이렇게 더 **거리를 두고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좀 더 심해진 느낌이에요. (I 교사 면담, 2020.09.16.)

(영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아이들 말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이들도 답답해해요.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해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상호작용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I 교사 면담, 2020.09.16.)

그림을 막 **뾰족뾰족하게** 그리고 빨간색으로 그려서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놀이에 적용**해서 바이러스를 그리고 “난 바이러스” 이라고 다니니까 한편으

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이 아이들에게 **바이러스는 무섭고 내가 감염되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고 있구나 싶어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전반적으로 보육 환경에서 유아들이 동적인 놀이 대신에 정적인 놀이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며 소그룹 놀이 위주로 진행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물리적 거리두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하여 유아들이 단독놀이를 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영아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상호작용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무서운 형상으로 그림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놀이 주제에도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유아들의 불안감이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 놀이를 찾아가는 아이들

이러한 위기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주어진 여건 안에서 그들 나름의 놀이를 찾아가고 있었다.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놀이에서 재미를 찾고 주어진 상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옛날에는 누워서 같이 뒹굴뒹굴하고 피곤한 친구들끼리 누워서 막 풍냥풍냥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를 아이들이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활발히 놀아요. 그 안에서 재미를 찾아요.** (A 교사 면담, 2020.08.27.)

우선적으로 저희는 원래는 한 영역에서 4명, 5명씩 놀이를 했지만 이제는 2명씩 놀이를 하기로 규칙을 아이들과 정했구요. 아이들도 코로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더니 이런 부분은 **금방 받아들였어요. 왜 해야 되는지도 이해했구요.** (C 교사 면담, 2020.09.15.)

그렇지만 이제 놀이를 할 때에 친구들이랑 어떻게 배분되어야 되는지 그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C 교사 면담, 2020.09.15.)

놀이하면서 놀이 속에 유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C 교사 면담, 2020.09.15.)

심지어 놀이 속에서 유아들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교사의 진술도 있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뿐 아니라 변화된 놀이 경험도 받아들이는 유아들의 뛰어난 적응력은 매우 의미 있는 발견으로 사료된다.

4.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

1)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휴원 조치로 인하여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이전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특히 저출산 사회이기 때문에 한 자녀 가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내 보육에서 상호작용의 기회 부족을 경험하기 쉽다.

7세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쉬고 온 친구들의 경우)대그룹 활동이 진행이 안 되는 모습도 많았고. 대그룹을 한 번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더라고요. 뭔가 협동해서 하는 게 “내가 할 거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런 걸로 싸우고. 제가 7세 반을 지금 3반 정도 맡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아이들이 다투는 건 처음이라서**. 코로나 겪고 오니까 집에서 또래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그게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변화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학교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아이들이 계속 가정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또래친구를 사귀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긴 하거든요. (B 교사 면담, 2020.09.17.)

장기간 가정 보육을 받고 온 유아들끼리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대그룹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사의 진술 내용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축소와 유아들의 사회적 기술 학습 간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교사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후 아이들의 또래 관계 형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지 않았나 싶어요.

(B 교사 면담, 2020.09.17.)

등원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교사가 아이들 간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촉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교실 내에서 유아들이 경험하는 사회적 상호작용 또한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언어적 의사소통에서도 이전에 비해 많은 부분 기회가 박탈된 상황은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 비언어적 상호작용의 제한

앞서 언급한 언어적 상호작용의 제한과 더불어 유아 간 및 교사와 유아 간 비언어적 상호작용도 제약을 받고 있었다. 비언어적 상호작용은 언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의사표현 방법으로서 언어 사용이 능숙하지 못한 영유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안아주는 거, 이런 거는 그래도 하는데 예전에는 가서 뽀뽀라도 해 주고 친구들끼리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어려워 가지고 뽀뽀 대신에 안아주기, 손잡기 이런 거는 하고 있어요.

(D 교사 면담, 2020.09.17.)

원래는 등원할 때도 교사가 안아주거나 하는데 어머님들이 **조금 가까이 가면 불편해 하시니까**. (A 교사 면담, 2020.08.27.)

마스크 끼고 있으니까 표정이나 이런 게 덜 보인다고 해서 목소리랑 행동으로 좀 많이 크게 표현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아쉬운 것은 그냥 얘기들끼리 약간 안아주고 이렇게 놀면서 친밀감도 쌓아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워져서 아쉽더라고요. (D 교사 면담, 2020.09.17.)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게 물리적으로 마스크를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스크를 씌으로써 사실 지금 아이들 말을 배우는 시기인데 교사 입모양을 본다는가 상호작용 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요. 발달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G 교사 면담, 2020.09.13.)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유아는 또래 및 교사와의 신체적 접촉이 금지되어 친밀감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영유아는 또래나 교사의 표정과 입 모양을 읽지 못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이후 보육 현장에서 영유아는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 경험 이 이전보다 상당히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영유아들의 보육현장 내 사회적 경험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은 영유아의 반응, 영유아의 보육 현장에서의 일상생활 경험, 영유아의 놀이 경험, 영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을 중심으로 파악되었다.

첫째,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영유아의 반응에 대해 알아본 결과, 영유아는 코로나바이러스를 괴물, 아픔, 죽음 등의 단어와 연관 지어 인식하고 있었으며,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불안감과 두려움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다. 부정적 정서 경험이 지속되는 경우 영유아의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질 수 있다(조필환, 201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유아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었는데, 죽음 불안은 유아가 경험하는 가장 강한 공포로 알려져 있다(Lazar & Torney-Purta, 1991). 특히 유아기에 형성된 죽음 불안은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onetto & Templer, 1986; 박언하, 최종옥, 2010에서 재인용).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아에게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환상 등을 야기 할수 있다(박언하, 최종옥, 2010). 실제로 연구 참여자인 교사들이 진행한 유아와의 개별 면담 결과, 대부분의 유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죽을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아픔, 고통 및 죽음이라는 단어와 연결하여 코로나바이러스를 인식하고 있었다. 유아들이 보이는 이러한 죽음 불안에 대해서 교사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과 논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둘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보육 현장의 물리적 환경의 재구성 및 장기적인 가정 보육은 영유아의 일상생활 경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선 보육 현장에서는 교사 및 또래와의 밀접 접촉 등이 제한되어서 발달적 자극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경험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영아

기 신체접촉의 중요성은 다수의 연구에서 강조되어 왔는데(김수정, 곽금주, 2003; Stack, 2001), 신체접촉을 통하여 영아들은 각성을 조절하고(Peláez-Nogueras et al., 1997) 타인과의 의사 교환을 한다(김수정, 곽금주, 2003). 또한 표정과 부드러운 신체접촉은 영아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의사 전달과 정서 표현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친밀한 관계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다(김수정, 곽금주, 2003). 교실 내에서 교사 및 또래와의 신체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영아의 의사 전달과 정서 표현의 중요한 통로를 차단할 수 있다. 더욱이 언어 사용이 미숙한 영유아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스크 착용과 물리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타인의 표정을 보지 못하거나 신체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도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장시간 가정 보육을 받는 유아들은 가정에서의 교육적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정에서 교육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질 높은 보육 환경에서 제공되는 경험이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다(Del Boca, Pasqua, & Suardi, 2016). 역으로 자녀에게 충분한 교육적 지원이나 환경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유아들에게 장기간의 가정 보육은 교육 기회의 박탈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셋째, 코로나19 위기 상황은 영유아의 놀이 경험에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놀이 그룹의 규모와 놀잇감도 축소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놀이 유형도 정적인 놀이 위주로 구성되었다. 교사들은 대그룹 놀이보다는 소그룹이나 개별 놀이를 선호하고 있었고, 실외 놀이나 신체 놀이는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신체접촉이 덜한 놀이가 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놀이 환경은 영유아의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van Liempd, Oudgenoeg-Paz, & Leseman, 2020). 코로나19로 인한 영유아들의 행동 변화에 관한 국외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수의 아이가 바깥 놀이와 또래와 놀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de Lannoy, Rhodes, Moore, Faulkner, & Tremblay, 2020; Sama et al., 2021). 이 연구들에서는 제한된 놀이 경험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Sama et al., 2021). 물론 본 연구의 조사 범위는 국내 영유아의 제한된 놀이 경험에만 국한하되 이로 인한 영유아의 발달 및 행동 변화까지 확대하여 살펴보지 않았다. 그러나 실외 놀이와 또래 놀이의 부족이 유아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외 연구자(de Lannoy et al., 2020; Sama et al., 2021)들의 공통된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놀이에 참여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마스크 착용에도 적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교사들의 진술과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이 빠른 적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의 적응을 위한 지원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위기에 대한 적응은 열악한 환경의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과 같은 보호 요인의 역할에 좌우된다(박현선, 1999). 이러한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해서 영유아가 속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교사와 영유아 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박현선, 1999).

넷째, 코로나19 이후 영유아들의 언어적 및 비언어적 상호작용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사들의 공통된 진술이었다. 장기간의 가정보육으로 인하여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기회가 줄어들었

고, 교실 내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때문에 또래 간의 신체접촉과 언어적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영유아들이 경험하는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은 그들의 뇌 발달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고, 정서적 고통, 공포와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Shah, Mann, Singh, Bangar, & Kulkarni, 2020). 유아기에 사회적 상호작용은 유아의 인지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Bodrova & Leong, 1996)으로 작용하므로 제한된 사회적 상호작용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기에 타인의 표정을 통해 타인의 정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경험이 부족하면 이후 전반적인 정서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영유아는 사회적 관계 내에서 타인의 정서 표현과 비언어적 의사소통 신호를 결합하여 타인의 언어를 맥락 내에서 이해하게 되는데(Kachel, Hardecker, & Bohn, 2021),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으로 인하여 이러한 정서 표현 및 이해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유아 지원 방법에 대한 실천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는 영유아를 안심시킨 후 발달 수준에 적합한 질문을 통해 사실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의 스트레스 대응 방법을 영유아와 공유하며, 과도하고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는 미디어 시청을 제한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유아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과도한 불안감이나 공포를 경험하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성인이 규칙적인 일과를 따르고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것 자체가 영유아에게 긍정적인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상황이지만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영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활동과 놀이를 마련하여 자녀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유아를 담당하는 교사는 영유아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화 또는 영상 통화를 활용하여 친구나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거나, 카드나 그림편지를 쓰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가정보육을 이용 중인 영유아와의 관계 유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적 경험을 위하여 개별 교사의 노력 뿐 아니라 교사와 영유아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육의 질적 강화를 위한 논의(최혜영, 박진재, 신나리, 2017)는 지속되어 왔으나 이제는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의 질을 유지하여 영유아의 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의 사회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육교사와의 개별 인터뷰를 주로 사용하였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외부인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어서 연구자가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의 생활을 직접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자료 수집 방법과 자료원을 통하여 자료의 진실성(trustworthiness)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지역과 시기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후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 지역과 시기에 따라 영유아의 경험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고은경, 견주연, 하지민 (2015).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효과: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18. doi:10.14698/jkce.2015.11.5.001
- 김상림 (2012).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연구: 개인변인, 또래유능성 및 교사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4), 207-230.
- 김수정, 광금주 (2003). 의사 전달적 기능으로서 영아기 신체접촉. **인간발달연구**, 10(2), 51-73.
- 박언하, 최종욱 (2010). 자살 관련 미디어 노출 빈도에 따른 유아의 죽음 불안의 차이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387-403.
- 박현선 (1999). 실직가정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resilience)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한국아동복지학**, 8, 35-58.
- 보건복지부 (2020). 보도참고자료-어린이집 휴원 해제 계획.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4792에서 2020년 10월 1일 인출
- 아시아경제 (2020. 8. 4.). 수도권 지역 어린이집 18일 문 연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80414225695552&mobile=Y>에서 2020년 10월 1일 인출.
- 양옥승 (2013). 영아 자기조절 능력 측정척도의 개발, **유아교육연구**, 33(2), 427-443. doi:10.18023/kjece.2013.33.2.019
- 육아정책연구소 (2020). **감염병 재난 극복을 위한 영유아 심리방역 매뉴얼**.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조필환 (2013). 초등학생의 운동참여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 간 인과모형. **교과교육학연구**, 17(1), 129-149. doi:10.24231/rici.2013.17.1.129
- 최예린 (2020). 코로나19에 대한 보육교사의 정서적 경험과 달라진 어린이집 일상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연구**, 22(1), 253-279. doi:10.15409/riece.2020.22.1.12
- 최은영 (2020a). **유치원, 어린이집의 코로나19 대응체계 진단 및 과제**. 서울: 육아정책 연구소.
- 최은영 (2020b). **코로나19 육아분야 대응체계 점검: 어린이집 · 유치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자녀 돌봄 현황 및 향후 과제**. 서울: 육아정책 연구소.
- 최혜영, 박진재, 신나리 (2017).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어린이집 운영 정책: 정책 고찰과 새 정부의 정책 제언을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5), 21-41. doi:10.14698/jkce.2017.13.05.021
- Bodrova, E., & Leong, D. (1996). *Tools of the mind: The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Merrill.
-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20). COVID-19 <https://korean.cdc.gov/coronavirus/2019-ncov/cases-updates/cdc-in-action.html>에서 2020년 12월 6일 인출
- Chen, F., Zheng, D., Liu, J., Gong, Y., Guan, Z., & Lou, D. (2020). Depression and anxiety among adolescents during COVID-19: A cross-sectional study. *Brain, Behavior, and Immunity*, 88, 36-38. doi:10.1016/j.bbi.2020.05.061
- Crescentini, C., Feruglio, S., Matiz, A., Paschetto, A., Vidal, E., Cogo, P. et al.(2020). Stuck outside and insid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the COVID-19 outbreak on Italian parents

- and children's internalizing symptoms. *Frontier in Psychology*, *11*, 586074. doi:10.3389/fpsyg.2020.586074
- de Lannoy, L., Rhodes, R. E., Moore, S. A., Faulkner, G., & Tremblay, M. S. (2020). Regional differences in access to the outdoors and outdoor play of Canadian children and youth during the COVID-19 outbreak. *Cana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1*(6), 988-994. doi:10.17269/s41997-020-00412-4
- Del Boca, D., Pasqua, S., & Suardi, S. (2016). Child care,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ren's school outcomes: An analysis of Italian dat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32*(2), 211-229. doi:10.1007/s10680-015-9370-0
- Kachel, G., Hardecker, D. J. K., & Bohn, M. (2021). Young children's developing ability to integrate gestural and emotional cues. *Journal of Experimental Child Psychology*, *01*, 104984. doi:10.1016/j.jecp.2020.104984
- Kostelnik, M. J., Whiren, A. P., Soderman, A. K., Rupiper, M. L., & Gregory, K. M. (2017).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and learning, 영유아의 사회정서발달과 교육 (박경자, 김소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경기도: 교문사(원판 2010).
- Lazar, A., & Toney-Purta, J. (1991). The development of the subconcepts of death in young children: A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2*(6), 1321-1333. doi:10.1111/j.1467-8624.1991.tb01608.x
- Lonetto, R., & Templer, D. I. (1986). *Death and anxiety*. Washington, DC: Hemisphere.
- Peláez-Nogueras, M., Field, T., Gewirtz, J. L., Cigales, M., Gonzalez, A., Sanchez, A., & Richardson, S. C. (1997). The effects of systematic stroking versus tickling and poking on infant behavior.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8*(2), 169-178. doi:10.1016/S0193-3973(97)90034-4
- Sama, B. K., Kaur, P., Thind, P. S., Verma, M. K., Kaur, M., & Singh, D. D. (2021). Implications of COVID-19-induced nationwide lockdown on children's behaviour in Punjab, India. *Child Care Health and Development*, *47*(1), 128-135. doi:10.1111/cch.12816
- Shah, K., Mann, S., Singh, R., Bangar, R., & Kulkarni, R. (2020). Impact of COVID-19 on the mental health of children and adolescents. *Cureus*, *12*(8), e10051. doi:10.7759/cureus.10051
- Saurabh, K. & Ranjan, S. (2020). Compliance and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due to COVID-19 pandemic [Electronic version]. *The Indian Journal of Pediatrics*, *87*(7), 532-536. doi:10.1007/s12098-020-03347-3
- Stack, D. M. (2001). The salience of touch and physical contact during infancy: Unraveling some of the mysteries of the somesthetic sense. In G. Bremner, & A. Fogel (Eds.), *Handbook of developmental psychology: Blackwell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pp. 351-378). London: Blackwell Publishing.
- van Liempd, I. H., Oudgenoeg-Paz, O., & Leseman, P. P. M. (2020). Do spatial characteristics influence behavior and development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67*, 101385. doi:10.1016/j.envp.2019.10138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0). *Advice on the use of masks the community, during home care and in health care settings in the context of the novel coronavirus (2019-nCoV) outbreak*. <https://www.who.int/docs/default-source/documents/advice-on-the-use-of-masks-2019-ncov.pdf>에서 2020년 10월 1일 인출

논문투고: 21.02.06
수정원고접수: 21.03.14
최종게재결정: 21.03.23